

POLITICS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전남 숲길에 도로명 부여 도, ‘K-트레킹’ 수요 대응

전남의 숲길에도 도로명이 부여돼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전남도는 5개 시군 15개 구간의 등산로·둘레길·탐방로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 안전을 높이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색 있는 도로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계기로 한국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해외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외국인들이 설악산이나 남산 등 유명 산뿐 아니라 지역 숲길에서도 사계절의 풍광을 즐기도록 숲길 도로명 부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숲길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도로명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개선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이 빨라져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졌다. 숲길 주변 공중화장실, 쉼터, 안내소 등 편의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은 △여수 고리산 둘레길 △담양 병풍산 숲길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 △강진 보은산길 △영광 불갑저수지 물명길·불갑탐미공원 상사화길·상사화1길 등이다.

전남도는 이들 숲길이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돼 ‘K-트레킹’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선운지구다사로움 잔여세대 공급 광주도시공사, 20세대 청약 접수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선운지구다사로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간동안 발생한 공가세대 중 일반분양 후 남은 잔여 20세대를 재공급한다.

이번 공급 세대는 지난 6월 공가세대 28세대 일반분양 후 남은 잔여세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76㎡의 경우 무순위(사후) 모집 방식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고, 49㎡의 경우 직전 모집공고에서 경쟁 미달됨에 따라 임의공급 방식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급 세대는 전용 49㎡ 16세대(분양가 1억9040만원), 전용 76㎡ 4세대(분양가 2억7650만원)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입주 단지로서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며, 입주자는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게 된다.

청약 자격은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내란 종식” vs “독재 저지” 여야 격돌 예고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부터 나흘간 연이어 특검·미 구금사태·확장재정 등 곳곳 충돌

국회는 15일부터 나흘간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는 분야별로 무제한 질문과 전투력이 센 의원들이 배치됐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 의원이 각각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대국민 사과와 위한 정당 해산심판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고 있다며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할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12·3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과 친명(이재명)계 이혜성·전준호 의원 등을



발언하는 한정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제했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토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등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철

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과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규택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정부의 실정을 추궁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현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을 따질 전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강진군, 글로벌 K-답사 1번지로 육성”

정책비전투에서 10대 비전 제시…정주·산업 미래 구상 군민 건의 현장 소통…관광 인프라·인력난 등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강진군을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강진 웰니스푸스센터에서 열린 정책비전투에서 “교통·관광·정주 여건을 개선해 강진을 ‘글로벌 K-답사 1번지’로 만들겠다”며 “전남도가 강진군의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강진원 군수, 서순선 군의장, 도의원과 청년·지역 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

강진은 다산초당과 월출산, 고려청자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반값 여행’,

전국 최고 수준의 안구정책 등 혁신 사례가 더해지며 정책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전남연구원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신(新) 강진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반값 여행에서 반값 살아보기로 확장 △산·섬·만·항을 아우르는 관광 1번지 △강진형 10차 산업 거점 △One-Town 주거모델 조성 △중남부권 교통거점 기반 구축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촌민박·마을호텔 푸소 확대, 생활인구 500만 달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및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현장 토크에서 군민들은 관광

편의시설 확충, 인력난 해소, 화훼농가 지원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들미 문화관광해설사는 “백운동정원은 호남 3대 정원이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둘레길과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환철 영유산인업이사는 외국인 학생비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건의했으며, 김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도 차원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강진군과 전남도의 동행은 청년과 사람이 돌아오는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 건의를 정책으로 반영해 강진이 글로벌 K-답사 1번지로 리메이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진=이진록 기자 sa332252@gwangnam.co.kr

광주 대표 캐릭터 ‘빛돌이’ 우수상…활용·친밀도 호평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서 생활속 시정홍보·시민참여 활동 공로 인정

광주 대표 캐릭터 ‘빛돌이’가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관광공사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공동 주최로 지난 1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캐릭터 페스티벌’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캐릭터를 대상으로 디자인 완성도, 활용도, 대국민 친밀도, 브랜드가치 등 전문가 평가(50%)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50%)를 합산해 우수 캐릭터를 선정했다.

‘빛돌이’는 단순한 디자인 경쟁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든 빛돌이 이야기와 참여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빛돌이’는 각종 시민참여 행사와 온라인 소통 콘텐츠, 기념품 제작 등에서 친근하게 다가서며 생활 속 시정 홍보에 앞장섰다.

지난해 여객연구 캐릭터 ‘빛나영’과 청년 스토리로 만들어내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다.

연애와 결혼 → 청년 결혼 지원 정책 홍보, 임신과 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 제도 소개, 육아와 교육 → 보육·돌봄 서비스 안내, 청년 일자리 → 취업·창업 정책 등 ‘빛돌이 패밀리’의 성장 과정은 곧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 홍보로 이어지며, 정책을 딱딱하지 않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광주시민의 날’에는 ‘빛돌이’와 ‘빛나영’의 결혼식 퍼포먼스가 열려 큰 화제를 모았다. 전국의 캐릭터들이 함께한 이색 퍼포먼스는 시청 야외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웃음을 선사했다.



박광석 대변인은 “빛돌이가 시민과 함께 웃고 공감하며 성장해온 덕분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빛돌이 패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와 생활 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한 ‘빛돌이’는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을 담아내 시청 홍보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국 최초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주목

광주시가 지난 2027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실무 경험 중심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발맞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이다.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지금까지 7940명의 청년과 514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올 하반기에도 총 400명의 청년이 244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이어가

참여해 그동안 203명의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취한국알프스는 2023년부터 91명의 청년에게 생산기술 공정,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지원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청년의 열정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채용 기회로도 이어져 유익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의 성장을 함께하며 기업도 보람을 느낀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진 ‘드림파트너스소통’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미래 성장

2017년 이후 청년 7940명·사업장 5147곳 참여 실무경험부터 취업까지…일자리 진입 디딤돌 역할

고 있다.

올해는 청년과 기업 수요에 맞춰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자기주도형(주 25시간, 5개월)으로 참여 유형을 다양화해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파트너십’ 행사를 열어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등기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 일경험드림 참여기업 대표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알프스, ㈜무등기업, 조선대학교 등 일경험드림 참여 우수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일경험드림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7년부터

비전’을 밝히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 전략 사업인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미래차 국가산단과 미래차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쇼핑몰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 융복합 기업 총 1000개사를 집적화하고, 국가시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국가시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국가 정책으로 전국화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청년의 성장에 공 광주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하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AI 2단계 사업, 미래차산단 등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 성장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